

不快(불쾌)

{단편영화}

- 제작: 한국방송예술진흥원
- 연출: 최면규
- 조연출: 한대희
- 촬영: 강민준, 한대희
- 편집: 윤채은
- 음향: 고하원, 차혜임
- 모티브: 불쾌한 골짜기
- 대본: 윤채은, 고하원, 차혜임
- 대본 각색: 최면규, 한대희
- 캐스팅 담당자: 한대희
- 러닝타임: 10분 이내

- 촬영 기간: 2024.05.09.(목), 2024.05.12.(일) 2회차
- 배우 모집 공고 기간: 2024.04.24.(수) ~ 2024.04.29.(월)
- 오디션: 2024.05.02.(목) 오후 2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1관 1층 호리존 스튜디오)

- 촬영 장소
 - 가평 밸리247 독채펜션
 - 서울 신당동 골목
 - 서울 신당동 떡볶이 공원

{간단한 시놉시스}

학교 때문에 이사를 와 동네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수정은 친구의 제안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동갑내기인 지은이와 만난다. 지은이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찾고, 함께 얘기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영상통화 직전 수정이의 화면에서 이상한 얼굴이 등장하고, 그 후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이상한 인물, 후드를 벗으면서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고 수정은 무서움에 집으로 도망치게 된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

평생 교육 시설 교육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S#1 >

(희주한테 전화가 온다.) (전화 오는 핸드폰 화면으로 영상 시작)
(수정이는 집에서 희주와 전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털어놓고 있다.)
(배경은 저녁 분위기는 어둡다)

희주 : 여보세요. 오늘 일도 쉬는데 뭐해

수정 : 그냥 집에서 누워있지

희주 : (장난스럽게) 쉬는 날에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 친구도 좀 만들고.

수정 : 이사 온지 얼마 안되서 아는 사람아 하나도 없어.

희주 : 그럼 너 랜덤채팅 앱 알아? 나도 친구한테 들어서 안 건데 그걸로 동네 친구 만들더라고.

수정 : (의아해하면서) 랜덤채팅? 그거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야?

희주 : 아닐걸? 내 친구가 그러는데 다 인증된 사람들만 할 수 있대.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면 되지.

수정 : (고민하는 정적 2초 후) 아 몰라. 일단 끊을게.

(전화를 끊고 영상을 보다가 고민 후 랜덤채팅 앱을 설치한다.)

수정 : (앱 설치 후 빨래가 생각난 수정) 아 맞다. 빨래

(수정이가 나간 사이 앱에서 알람이 울린다.)
(수정이가 방에 다시 들어와 태블릿을 만진다.)

수정 : (고개를 기우뚱하면서 고민하는 수정) 한번 들어가 볼까?

여자(이름:지은) (채팅 부분)

지은 : 안녕하세요! 저희 동갑이고 같은 동네인데 친구 해요!

수정 : 안녕하세요! 지은 님도 연신 대 근처에 사세요?

지은 : 네.

수정 : 저희 동갑인데 말 서로 편하게 할까요?

지은 : 어 그래, 말 편하게 하자

수정 : 우리 편하게 영상통화 할래?

지은 : 그래. 근데 얼굴은 바로 보여주는 좀 그래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단편영화 “不快(불쾌)”

(영상통화가 시작된다.)

(지은이는 상반신만 보여준다.)

수정 : 안녕.

지은 : 안녕. 연신대 근처 산다고 했는데 학교 때문에 온 거야?

수정 : 응. 나 연신대 다니거든.

지은 : 어 나도 연신 대인데. 그럼 혹시 전공이 뭐야?

수정 : 나 미디어 전공이야. 너는 전공이 뭐야?

지은 : 나도 미디어 전공이야.

수정 : 아, 그럼 밥 같이 먹을래?

지은 : 그래. 좋아. 그럼 너 혼자 사는 거야?

수정 : 어. 나 혼자 자취 중이야. 여기 근처 공원도 좋아서 좀 있다 산책하려고.

지은 : 언제쯤 나갈거야?

수정 : 나 이제 나가려고 왜?

지은 : 아니 그냥 궁금해서

수정 : 나가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지은 : (당황하면서) 지금은 좀 그렇고 다음에 보여줄게.

수정 : 그래 알겠어. 끊을게.

(영상통화가 종료되면서 불쾌한 골짜기 등장은 통화를 끊기 직전에 화면이 멈추면서 치직 거리면서 잠깐 찰나의 순간으로 얼굴이 잠깐 나왔다가 영상통화가 종료된다. 수정이는 그것을 보고 흠칫한다.)

수정 : (혼잣말로) 방금 뭘 본거지?

(희주한테 전화를 거는 수정)

수정 : 여보세요? 너가 말한 랜덤채팅 앱 설치해서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좀 짹짹해

희주 : 왜? 뭘 일이야?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단편영화 “不快(불쾌)”

수정 : 아니. 나랑 사는 동네도 같고, 학교도 같아서 처음에는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그 친구는 얼굴을 보여주기가 좀 그런가 봐.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를 끊으려다가 화면이 멈추면서 이상한 얼굴이 잠깐 보였어.

희주 : 앵? 뭐야? 이상한 얼굴?

수정 : 나도 잠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 기분 좋았다가 마지막에 얼굴 본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

희주 : 잘 못 본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수정 : 그러겠지? 산책하면서 머릿속을 비우려고

희주 : 알겠어. 끊어.

(전화를 끊고 수정이는 산책을 나갔다.)

< S#2 >

(산책을 나간 수정이는 산책하던 도중에 에어팟을 떨어뜨렸고 그걸 본 상대방은 말없이 수정한테 에어팟을 주워 준다.)

수정 : 감사합니다.

(수정이는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쿨하게 물건만 주고 사라지는 상대방.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정.)

수정 : (건네받은 에어팟을 만지면서) 뭐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날}

(수정이는 또다시 산책을 나간다. 산책하던 중 사람과 부딪치게 되고, 넘어진 수정은 사과를 하는데)

수정 : (부딪히고) 죄송합니다.

지은 :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수정이는 뒤를 돌아봤는데 어제 물건을 주워준 상대방인 것을 알고, 다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말없이 고개 사과만 하고 수정과 반대 방향으로 갈 길가는 상대방)

(이번에는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용기 내는 수정이)

수정 : (뒤따라가서) 저기요.

지은 : (수정 소리에 천천히 멈춰 선다.)

수정 : 어제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다면 음료 하나 사고 싶은데요.

지은 : (다시 갈 길을 간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단편영화 “不快(불쾌)”

수정 : 어 그래도!

(상대방을 멈추게 하려고 붙잡다가 후드티의 모자가 벗겨진다. 벗겨진 뒷모습은 불쾌한 골짜기의 모습이다.)

수정 : (당황한 수정) 아 죄송함.. (컵을 먹고 사과를 하다가 골목으로 도망친 수정, 집으로 빠르게 뛰어간다.)

< S#3 >

(집에 돌아온 수정이는 침실에 앉아서 불안에 떨며 희주한테 전화를 건다.)

수정 : 희주야... (떨리는 목소리로)

희주 :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정 : 그때 영상통화 이후로 그 이상한 얼굴이 안 잊혀서 어제랑 오늘 산책을 나갔는데

희주 : 어

수정 : 어제 내가 에어팟을 떨어뜨렸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주워 준 거야.

희주 : 어어

수정 : 근데 오늘 또 산책하다가 어떤 사람처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에어팟을 주워준게 고맙기도 하고 사례도 해야겠다 싶어서 딱 잡았다? 근데 후드 모자가 벗겨지면서 전에 내가 말했던 이상한 얼굴이길래 놀라서 집으로 뛰어왔어. 그래서 무서워서 너한테 전화를 건 거야

희주: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수정 : 모르겠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희주 : 지금 바로 갈게 노래나 들으면서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려

수정 : 알겠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책상 쪽으로 가서 담요를 덮고 앉는 수정)

(노래를 들으면서 물컵으로 물을 먹고 있는 수정, 갑자기 듣고 있는 노래가 이상해지면서 컵을 내려놓는다.)

수정 : 아 갑자기 노래가 왜 이래 (이상한 노래를 다른 노래로 바꾼다)

(그리고 책상에 있던 에어팟이 바닥에 떨어진다)

수정 : (심정이 불안정하지만 짜증도 나기 시작한다) 이걸 왜 떨어지는거야 (에어팟을 주워 침대에 던진다)

(에어팟이 침대에 퐁퐁 나뒹군다.)

수정 : 아 진짜 왜 또 이러는 거야 (바꿨던 노래마저 이상해져서 노래를 끌려고 하는데 안 꺼지는 노래)

수정 :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 에어팟을 주워 다시 침대에 놓은 수정)

(다시 에어팟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에어팟이 없어서 침대 밑을 무릎을 꿇고 휘적거리는 수정)

수정 : 뭐야 (당황한 듯한 말투)

수정 : 이게 왜 우리 집에 (꺼낸 물건은 에어팟이 아니라 팔찌가 나와 놀라면서 바닥에 떨어진다.)

(팔찌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불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한다.)

(수정은 깜빡이는 전등을 보고 놀라 방을 나가려고 하지만 방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 순간 음악이 꺼지고, 불도 꺼지고 문고리 열기를 멈춘다)

(불이 켜지고 뒤에서 팔찌 소리가 난다)

(수정이는 뒤에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 눈이 돌아간다.)

(화면이 돌아가면서 불쾌한 골짜기의 얼굴이 나왔다)

수정 : 으악! (큰 목소리로 놀란다)

(불쾌한 골짜기가 바로 보이고 확 덮침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